



참신한 글을 쓴다는 것

전 해 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수업계획서를 통해 그 수업이 어떤 글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상담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수업계획서는 교수들이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교수 자신이 가진 글쓰기 방법론 등의 추가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과제뿐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 전반에 대해서도 좋은 자료가 된다. 글쓰기 과제에 요구하는 형식, 주제, 스타일 등은 수업마다 다르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지침은 거의 빠지지 않고 수업계획서에 등장한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담은 글을 써오라는 것. 당연한 말이다. 글이란 어쩔 수 없이 쓴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매개체가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동어반복 같은 지침이 처음 학술적인 글쓰기를 접하는 학부생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 지침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주어진 책이나 글을 비평하라”,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담아 서술하라”,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사용하여 무엇을 분석하라” 등등.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은 “참신한” 혹은 “창의적인” 주장을 제시하라는 요구이다. 이런 지령이 떨어지면 학생들은 방향을 잃고 “아하!”의 순간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며 사색에 잠겨버린다. 일단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려워한다. 주제가 바로 글의 참신함이나 창의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여, 제목만 보아도 툭툭 튀는 주제를 찾기 위해 자신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글의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정작 정말 참신해야 할 자신의 주장을 다듬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더욱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이런 과제가 비평을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영화 감상문을 쓰는 등의 일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과



제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는 일은 어렵게 생각한다. 학술적 글을 통해 어떤 주장을 하거나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의 문제의식이나 해당 과목의 주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목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 유의미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미 그 과목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이 분야의 대가들의 말을 평가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한다.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방식을 찾지 못하면, 비평의 대상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사소한 오류만을 지적하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훈계를 서슴지 않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한다.

글에 자신의 생각을 담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반드시 “나는 ~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글에서 다루는 대상을 이해하고 소개하는 방식, 주어진 사실이나 글을 분석하고 재구성한 방식, 문제를 설정하고 답해나가는 방식 등에 이미 글쓴이의 관점과 주장이 녹아들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글쓴이가 보여주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참신한’ 글의 기본 요건일 것이다. 따라서 ‘참신한’ 글을 쓰고자하는 학생들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색에 잠기는 등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글의 재료가 될, 주어진 책이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는 일은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참신해 보이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자료들을 잘못 혹은 왜곡해서 이용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토머스 쿤(Thomas Kuhn)은 사료를 해석할 때 가장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여 마침내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텍스트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자신과 다른 패러다임에 속한 과거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반드시 역사학의 방법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글이나 자료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글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제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큰 주제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세부 내용들 사이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글에서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몇 글들을 읽고 바로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세우기는 어렵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부터 문득문득 떠오르는 작은 의문점들로부터 출발해, 이러한 질문들이 전체적인 주제나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나가야 한다. 자신이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 ‘왜 내가 재미를 느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미있다는 느낌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의식과 관련해 그 내용이 어떤 통찰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나의 문제의식’과 저자의 문제의식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많은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자신이 처음 설정한 주장이 전체 주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결국 글쓰기에서는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견뎌내면서 꾸준히 시도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쓰기교실의 ‘리포트 튜터링’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켜보고, 격려하여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신한 글을 쓴다는 것은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리저리 분해해보고, 재구성해보는 데에서 참신한 주장과 관점이 만들어진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글을 써야한다는 부담과 강박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재료들을 잘 이해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생각들이 가능할 것이다.